

공급망안정화기금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왔으며, 앞으로 중소·중견기업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.

<보도내용>

- 10.14일 연합뉴스는 「공급망기금 91% 대기업에…지원체계 보완해야」 제하의 기사에서,
 - 공급망안정화기금의 대기업 지원 비중이 높고, 중소기업 지원 비중은 감소하고 있어 지원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<재정경제부 입장>

-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여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 확보, 수입선 다변화 등을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금융지원을 지속 확대해 왔습니다.
 - 기금 지원금액(승인 기준)은 '24년 2.1조원에서 '25년 7.1조원, '26년 9월 말 기준 8.1조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.
- 원유 등 주요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 확보에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어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대기업 비중이 높으나, 지원건수 기준으로는 중소·중견기업이 약 50%*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
 - * '26.9월말 건수 기준 비중(누적) : 대기업(51%), 중견기업(25%), 중소기업(24%)
- 특히, 금년 상반기 중동 위기대응 과정에서 원유 구매자금 등 대규모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대기업 지원금액 비중이 높아진 측면이 있습니다.

□ 앞으로도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하는 한편, 「공급망 상생금융 프로그램*」을 적극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

* '26.5월 도입한 프로그램으로, 한국수출입은행이 대기업 선도사업자로부터 협력 중소기업 추천받아 원재료 공급·구매 관련 자금을 지원, 최대 2.4%p 우대금리 등 적용

담당 부서	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대응담당관	책임자	과 장	이지은 (044-215-7880)
		담당자	사무관	박영우 (paxkoreana@korea.kr)

